

# 牛峯李氏大宗報

發行人兼編輯人：李萬寧  
主 幹：李丙泰  
發 行 處：牛峯李氏大宗會 02)753-6340~1  
서울시 중구 무교동 25-1 원창빌딩 512호  
http://woobonglee2000.hihome.com  
印 刷 處：신오성기획인쇄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장학기금 모금 추진위원회를 결성 효과적인 모금방안 등 강구책 논의 추진위원장에 漢九 부회장을 선임

지난 2월 18일 장학기금 모금 추진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날 만녕회장 초청형식으로 롯데호텔 벵케이 일식당에서 가진 추진준비위원회는 병태 대총회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날 만녕 대총회장은 장학기금 모금을 효과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위해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총회는 장학사업의 제일의(第一義)의 목표로 종재의 증식과 함께 장학제도의 시행을 위한 효과적 방안으로 장학기금 모금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날 토의과정에서는 한구 대총회 부회장이 종무위원과 청장년회 임원을 중심으로 1,000,000원씩 모금에 협력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영범 부회장은 장학사업에 대하여 장학금 목표액인 3억원으로 모금이 이루어 진다하더라도 은행이자를 감안 한다면 어려운 일이라고 전제하

고 일각에서는 종종 사무실이 없어 전세로 있는 형편이니 우선 사무실부터 마련하는 모금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우선 대총회 건물이 마련되면 임대수입으로 장학사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덕 부회장은 3억원 목표 모금 후 대총회 건물을 구입해 임대사업으로 얻어진 수입금을 장학기금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만녕 회장은 기부금 처리에 있어서 법인체 등록문제 등으로 기부자의 세금 면세혜택

및 공개념의 법적 절차를 생각해서도 운영의 방안을 생각한 것이며 장학기금 모금은 宗財의 增殖方法이라는 측면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선 효과적인 모금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장학기금 모금 추진위원회 결성은 한구 부회장을 추진위원장에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병덕 부회장을 부위원장에 그리고 각 추진위원을 임명했다.

고문 萬寧(대총회장), 위원장 漢九(대총회 부회장), 부위원장 丙德(대총회 부회장), 추진위원 學九(대총회 부회장), 泰寧(대총회 감사), 永範(대총회 부회장), 忠範(대총회 종무위원), 각 지역 문중 회장, 간사위원 丙泰(대총회 사무총장)



신년하례회 2004년 1월 10일 서울시 태평로에 있는 프레스센터 19층에서 50여 명의 일가가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사진·용무 종무담당역)

## 4/4분기 종무위원회 및 청장년회의 개최 총회 준비 및 장학기금 계속 사업 추진 결의

지난 10월 19일 4/4분기 종무위원회가 대총회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먼저 만녕 회장은 인사를 통해 그동안 지방문중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활성화에 노력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전제하고 장학사업은 계속해서 새로 취임하는 회장에게 넘기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고 하도록 하는 의견에 따라 재 추대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전개하여 온 장학금 모금에 있어서는 9개 파별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 배정하는 안과 새로운 사업으로 자라나는 젊은 세대가 집성촌 및 선조와 집안내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책자를 새로이 편찬하자는 만녕 회장 제안에 따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이날 회의는 2004년 한해를 마감하는 대총회 총회를 앞두고 임기가 끝나는 회장단 선거에 있어서 회장단 선출 방법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나 이구동성으로 만녕 회장이 재임

한편 10월 20일에 개최된 청장년회(회장:법탁)에서도 총회 준비 지원과 청장년회 활성화를 위한 젊은 층 회원모집에 박차를 가하자는 안을 결의하였다.

## 사직공 보령종회 장학기금

### 평생회원(10,000,000원)으로 약정

사직공 보령종회(회장:惠寧)에서는 그동안 안 보령문중에서도 자체로 장학사업을 계획하고 있던 중 대총회가 전개하게 되는 우뚝이 씨 장학금 모금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덕녕회장이 알려 왔다. 따라서 지역 문중 명의로는 보

령문중이 첫 번째로 평생회원에 가입하게 되었다. 한편 보령문중에서는 효자(鎬鼎)공의 효정려(孝旌闔)가 동리 입구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 오랜 세월동안 마모되어 없어진 것을 문중에서 우선사업의 일환으

로 지역 유림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재건할 것을 결의하고 금년 안으로 신속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효자공은 1860년(철종11) 4월 27일에 태어나 1920년 6월 3일에 향년 61세를 일기로 돌아가신 분이다.

## 대총회 사무실 이전 무교동 25-1 원창빌딩 512호로 이전

지난 8월 31일, 무교동 33-1 무교빌딩 5층에 있던 대총회 사무실을 무교동 25-1번지에 있는 源昌빌딩(서울시청 후문

건너편) 5층 12호실로 이전하였다. 사무실 이전 축하를 위해 화분을 보내준 일가

丙錫 (주)JDC TECH 대표이사(종무위원)  
萬寧 (주)光一 대표이사 회장(회장)  
昌茂 아세아 제지(주) 대표이사(부회장)  
範卓 삼광유리(주) 전무이사(청장년회 회장)

2003년도 총회참석 일가 찬조금 납부현황

이름	금액
萬寧(회장)	1,200,000원
淸寧(부회장)	500,000원
秉茂(부회장)	1,000,000원
昌茂(부회장)	200,000원
丙泰(사무총장)	100,000원
詰衡(재무담당역)	100,000원
範卓(청장년회 부회장)	200,000원
淸白吏公 아산파소총중	100,000원
淸白吏公 牙山派大宗中	100,000원
廬齋(여재)공파 총중(금곡)	200,000원
忠範(종무위원)	100,000원
丙國(종무위원)	100,000원
永慕堂(회장:玆茂)	100,000원
詰九(대진 회수회장)	100,000원
昇寧(종무위원)	100,000원
泰寧(대중회 감사)	100,000원
司直公 保寧宗會(회장:應寧)	100,000원
丙天(종무위원)	100,000원
俊九(고문)	300,000원
聞慶宗中	100,000원
丙惠(종무위원)	100,000원
丙天(감찰공 도암공 문중)	100,000원
金浦·江華 宗中(회장:鉉寧)	300,000원
義城安溪울현총중(範周)	100,000원
範根(청원군)	100,000원
秉九(양평동)	100,000원
합 계	5,700,000원

2004년도 운영회비 및 장학금 납부 현황

(운영회비/장학기금 단위:원)

이름	운영회비	장학기금	비고
만녕(회장)	3,000,000	50,000,000	(약정 금액 중)
한구(부회장)	1,200,000	3,000,000	(약정 금액 중)
학구(부회장)	1,200,000	-	
병길(부회장)	500,000	-	
병덕(부회장)	1,200,000	3,000,000	(약정 금액 중)
청녕(부회장)	-	1,000,000	
병무(부회장)	1,200,000	-	
창무(부회장)	1,200,000	-	
영범(부회장)	1,200,000	-	(평생회원 약정)
태녕(감사)	600,000	-	(평생회원 약정)
병석(종무위원)	600,000	-	
병덕(종무위원)	600,000	-	
병국(종무위원)	600,000	-	
길웅(종무위원)	600,000	-	
무탁(종무위원)	300,000	-	
범서(종무위원)	600,000	-	
범태(종무위원)	600,000	-	
사직공보평문중(회장:덕녕)	-	10,000,000	(약정)

2003년도 4/4분기 종무위원회 개최  
대중회 자산증식 등 토의

지난 '03)12월 8일 17:30 (주) 광일 회의실에서 2003년도 마지막을 장식하는 4/4분기 회장단 및 종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총회 결산보고를 비롯한 세보부록에 비문 및 행장 국역원고료 지불 건에 대한 회의와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모임을 함께 가졌다. 이날 회의는 병태 사무총장 진행으로 시작되었는데 먼저 만녕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장학금 모금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기대할 만한 진

적이 있었다고 전제하고 오늘까지 2억여 원이 모금되었으며 앞으로 9개 문중으로부터 평생회원으로 10,000,000원씩 협조해 주신다면 2년 후에는 소기의 성과를 얻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는 철형 재정담당 역이 총회결산 현황보고와 연료하여 출입을 삼가고 있는 병주명 예회장에게 그 동안의 업적을 고려하여 1,000,000원을 위로금으로 사무총장이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2003년도 대중회 정기총회 개최  
장학기금 모금 취지 등 중점 논의

대중회와 지방문중과의 유대강화 및 자문위원 등 규약개정

지난 '03) 10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 서울시 용산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전 우회관 무궁화 홀에서 2003년도 우봉이씨 대중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태녕 청장년회 운영이사의 사회로 개회선언에 이어 시조 문경공 묘소 망배와 이어 어범봉 종무위원의 시 "우봉인이여 영원하라" (茂原 작) 낭송이 있었다.

이어 참석자중 제일 나이가 많은 의성군 단밀면 출신 建寧(1921년 12월 23일생) 일가에 대한 연고행존 부분 금일봉을 수여하고 일년간 문중을 위해 애쓴 다섯명의 일가에게 대중회가 수여하는 공로패 증정(음성 丙弘, 김포 강화문중 鉉寧, 의령공 문중 和茂, 참관공문중 在茂, 청주 의령공 문중 承寧)과 만녕 대중회 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만녕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 종회와의 유대강화를 지방출장으로 지역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제하고 선조묘소를 잘 관리하도록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해 주시길 당부했다. 또한 취임 후 장학기금 모금운동의 성과도 있어 앞으로 계속 회장단을 중심으로 장학기금 모금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의는 법탁 청장년회 부회장의 인사와 임원 및 지역 종중회장 인사 소개가 있었으며, 병태 사무총장의 장학기금 모금운동의 취지 설명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날 2003년도 대중회 결산 및 감사보고에서 태녕 대중회 감사는 세보편찬 위원회 결산 및 감사보고 및 2003년도 대중회 감사보고에서 기준에 준거하여 회계처리가 정확히 되었다고 전제하고 수입 및 지출이 건실하고 공정타당하게 표시되어 있었다고 보고(2003년 결산서 참조)했다.

이어 병태 사무총장의 규약개정 제안설명이 있었다. 규약개정안은 목적 2항 대중회와 지방 문중간의 유대강화와 16조(구성)(但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의결하였다. 이어 대중회 회



대중회 총회에서 지역 문중 회장들의 소개가 있자, 일가들이 박수로 환영하고 있다. (2003. 10. 24)



2003년도 대중회 및 문중 발전에 공로가 많은 일가들 (좌로부터) 음성문중 병홍(대리참석), 김포·강화문중 현녕(대리참석), 청주 의령공문중 승녕, 옥천화수회, 대중회 회장 만녕, 청장년회 재무담당역, 재무, 대전화수회 화무 일가



회장단 및 종무위원들은 6월 26일 창덕궁 비원을 관람하고 당면과제를 주제로한 간담회를 가졌다.

비제도에 대한 안건은 대중회가 그동안 임원 분담금으로만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 대중회가 발행되고 있으나 총회 때만 볼 수 있는 불편을 감안하여 불참하는 종인에게도 배부할 수 있도록 신

문발송 등의 우송비용으로 연회비 10,000원을 징수하는 안을 제시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이날 회의는 12:00에 폐회하고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나누며 종친간의 정을 나누었다.

# 각 문중 선조 묘소치산 사업 실시

## 아산시 충익공 묘소 및 문경 통정 대부 묘소 등

윤달을 맞아 각 문중에 이반에 치산하게 된 중 서는 선조 묘소를 정비하 익공 묘소는 지난 해 9월 기에 정성을 쏟고 있다. 19일 만녕 대종회 회장과



충남 아산시 영인면 구산리에 있는 중 우의정(埴)공과 충익공(鎬俊) 묘소를 수습년만에 만녕 대종회장이 300만원을 들여 치산하였다.



만녕회장이 2월 24일 제45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대시간 문중 병적 씨 차남 승욱군에게 기념패를 전달하였다.



문경중중(회장:세녕) 일가 70여 명은 9월 5일 청백리공 묘소와 참판공 묘소를 순례하였다.

### 문경중중 일가 선조 묘소 순례

#### 청백리공·참판공묘소와 옥천 영모당도 참배

지난 9월 5일 청백리 문중 문경중중(회장:세녕)에서는 일가 70여 명이 선조 묘소 순례에 나서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청백리공(순) 묘소와 참판공(근계) 묘소를 찾았다. 관광버스 2대에 나누어 오전 7시에 문경을 출발한 일행은 부부동반으로 오전 11시 30분에 인녕 청백리 문중 부회장의 영접을 받았다. 특히 일행중에는

基茂 남순욱, 尙茂 이인춘, 根茂 이남숙, 榮茂 정순자 등 4형제 부부가 참석하여 이채를 띄웠다. 이날 신무 대종회 감사의 안내를 받은 일행은 선조들의 행장을 파악할 수 있어 유익한 하루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참봉공 문중(회장:인녕)이 마련한 점심식사를 마친 일행은 오후 2시 옥천 영모당(회장:현무)으로 출발하였다.

병태 사무총장이 지역 중종 방문 시,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에 모시고 있는 중 호조참판(埴) 및 충익공(鎬俊) 묘소를 순례하던 중 지손이 끊겨 가꾸지 못하여 방치하게 된 것을 알게 되어 치산방안을 검토 끝에 만녕 회장이 현지 仲茂일가 책임

하에 치산할 것을 당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800평 규모의 묘역 중 우선 묘소 부근 200평만을 치산할 것을 결정하고 소요 경비 300만을 만녕회장이 사비로 지원하여 지난 3월 29일~30일 양일간 작업을 실시하였다. 한편 4월 2일에는 明俊 대종회 감사를 비롯한 昌茂, 正茂, 晙茂, 在茂 일가 등이 문경 가은면에 모시고 있는 高祖 정3품 통정 대부(尙用)공 묘비를 건립하였다.

### 교육사업에 공로로 병무회장 국민훈장 포상



秉茂 부회장

3월 18일 秉茂(아세아 그룹회장)부회장은 그동안 문경학원 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문경시 교육발전에 대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훈 받았다.

### 광녕 일가 한맥문학상 본상 수상



광녕 일가

지난 5월 10일 3·1빌딩에서 한맥문학회가 주최한 문학상 시상식에서 시인인 光寧 공 문중의 光寧(廣寧)일가가 한맥문학상 본상을 받았다.

광녕 일가는 서울교대와 연세대 대학원 출신으로, 현재 교직에 있으며, 강동문인회 회장을 비롯하여 새벽동인 교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집으로는 '당신의 향기 붙어', '나무는 늙지 않는다'와 교양집으로 '지혜의 샘' 등이 있다.

### 남녕 일가 인천 서구지역 소기업소 상공인 연합회 회장으로 뽑혀

남녕(男寧 제1필름대표)참판공 문중)일가 지난 5월 6일 인천 서구지역 소기업소 상공인 연합회 회장으로 뽑혀 취임했다. 이날 회의는 인천시 서구 연회동에 있는 연회 웨딩 뷔페에서 박명복 연합회 중앙회장을 비롯하여 김교훈 이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이학제 서구청장, 정상근 인천 중소기업청장, 서광림 경기일보 이사 등 관계 인사 150명이 참석했다.

### 친 환경 식품소재 산업의 선두주자

#### (주)光一, 서울신문에서 극찬

지난 8월 24일 서울신문은 만녕 대종회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광일에 대하여 식품소재 산업분야에서 꾸준한 투자와 인적자원의 고급화, 그리고 친 환경 식품소재 산업의 선두주자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라면 제조용 유화 유지인 'K-300'을

개발, 그 동안 판매된 절반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수입대체 효과를 인정받아 제28회(91) 무역의 날에 상공부장관 상을 받은바 있었다. 그리고 2000년에는 'ISO9002' 품질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여 고객 위주의 품질경영을 위한 토대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감찰공(圻)묘소에서 慰安祭 거행

#### 병철회장 집례로 일가 16명 등 참석

4월 10일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에 있는 감찰공 묘소를 治山하고 자손들이 모여 慰安祭를 거행하였다. 묘소 치산은 2003년 9월 29일, 1차 작업으로 42명의 협조 가능한 일가의 명단을 작성하여 墓所 治山推進委員會를 조직하고 위원장에 漢九 대종회 부회장을 선출하였으며, 추진위원으로 丙吉, 丙泰, 丙天, 丙珣, 丙鎬, 健寧, 昇寧, 根衡, 宗茂, 起淵, 忠範 일가를 선임하여 치산기금 모금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였다.

2. 葆眞庵公 宗中(간사: 基淵) 2,000,000원
  3. 農齋公 門中會(회장: 宰寧) 5,000,000원
  4. 陰城宗會(회장:丙煥) 2,000,000원
  5. 金浦 江華宗中(회장: 鉸寧) 1,500,000원
- 小計 13,500,000원
- 찬조 일가
- 漢九, 學九, 丙七, 丙文, 丙吉, 丙奭, 丙泰, 丙天, 丙惠, 丙珣, 丙鎬, 丙弘, 萬寧, 淸寧, 昇寧, 健寧, 根衡, 宗茂, 丙朝, 秉九, 雄茂, 忠範
- 小計 12,700,000원
- 3월22일부터 작업을 착수하여 4월 동안(~25일) 치산작업을 완료하고 4월 10일 묘소에서 위안제를 지냈다.

기금책정은 소중중 및 일가 개인별로 구분하여 적극모금할 것을 결의하고 당초 기금의 목표액을 30,000,000원으로 정하여, 5개 소중중을 비롯한 기금모금에 협조가능한 42명에게 모금협조의 서신을 발송하였다. 그 후 일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4월 10일 현재, 2,620만 원의 기금이 모금되었다. 기금모금에 협조한 문중 및 일가는 다음과 같다.

찬조 소중중

1. 大田 小宗中(회장:原九) 3,000,000원

### 昇茂 전 국회의원 별세



昇茂 전 국회의원

승무 전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24일(2003년) 오후 고昇茂 전국 지병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서울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를 졸업한 뒤

대한도시가스 회장, 동창제지 대표이사, 1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고 서봉 이동녕 봉명그룹 회장의 3남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신수연 여사와 딸 주영, 원선, 수진, 아들 범윤씨가 있다. 장지는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천주교 묘원에 안장하였다.

# 선조묘 찾은 일가들 집 비 내리는 일요일에 선조묘소 순례

## 보진 암공의 신도비는 향 토문화재로 업적 돋보여

지난 5월 9일 일요일 신록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리는 가운데 청장년회(회장:법탁)가 주최하는 선조 묘소 순례 행사에 30여 명의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실시되었다.

이날 강남구 역삼동 아세아 타운에서 출발한 일행은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위치한 감찰공(圻), 보진암공(之信), 효자공(翮), 효자공(劼), 상상김씨 묘역에서 감찰공 문중 대표로 마중 나온 병태 대종회 사무총장과 덕녕 종무위원의 영접을 받고 덕녕 종무위원이 설명하는 집안 내력을 들었다. 오후에는 청백리공문중의 병국, 인녕, 길웅 대종회 종무위원과 석구, 인무 등 청백리 문중 이사진의 영접을 받으면서,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청백리공(淳), 참판공(根繼)묘소 그리고 관악구 신림동 산에 모셔진 장령공(輯), 참봉공

(奇) 묘소를 참배했다. 이날 참석한 일가는 다음과 같다.

대종회 임원진 병태, 병국, 병수, 인녕, 덕녕, 길웅, 용무 내외, 흥범 청백리종중 이사 석구, 인무, 길웅

청장년회 임원진 법탁 내외, 병남, 방무, 재무 내외, 선녕 내외, 무준 내외, 우녕, 해녕, 법택, 장녕, 중훈(무호), 수녕, 용범,

감찰공종중 병규, 병국(타우공 문중)

그런데 이날 참례한 행사를 위해 찬조해준 일가는 다음과 같다.

대종회 500,000원, 만녕회장 100,000원, 병무대종회 부회장 300,000원,

창무 청장년회 고문 200,000원, 법탁 청장년회장 300,000원, 해녕청 장년회 부회장 100,000원, 우녕 청장년회 부회장 100,000원 계 1,600,000원

묘소 순례지역의 선조에 대한 내력은 다음과 같다.

## 화전동은 감찰공 문 중의 세장지로 조선 조 초기부터 내려와

감찰공(9세 圻)은 1411년 신묘(辛卯) 式年文科에 등과 되어 황해도 관찰사를 역임한 두봉공(8세 吉培)과 밀양박씨 사이에서 4남(圻·질·연·완) 중 장남으로 태어난 분이다.

공은 사헌부 감찰로 동반(東班)의 통례원 인의(引儀 6품 벼슬)를 거쳐 외직으로 충천도 은진, 전라도 함열, 평안도 강동 등지에서 현감(縣監)으로 나가 백성을 잘 다스려 좋은 평판을 받은 분이다. 그 후 의정부 좌참찬(정2품) 겸 지의금부사(知議禁府事)에 증직 되었다. 공은 문화 류씨(柳氏) 사이에서 2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 승녕(承寧)은 성균관 대사성, 둘째 승건(承健)은 예조판서였다.

감찰공(圻)자손들은 성균관 대사성공(10세 承寧), 예조판서공(10세 承健)을 비롯하여 손자로는 묵(默) 통도덕(通德), 심(諶) 증 吏曹參

判, 순(詢 禁府都事 司議) 등 3남을 두었으며, 증손은 강원도 관찰사공(之 行), 황해도 관찰사공(之 信), 삼우당공(之忠 參議) 공과 후손들은 만회당공(14세 有諫 우의정), 타우공(15세 翔 大司憲), 일휴정공(15세 翮 右議政), 농재공(15세 翊 吏曹判書), 귀낙당공(16세 晩成 刑曹判書), 충청관찰사공(16세 晩堅 충청도 관찰사) 등 많은 명신 현관이 나온 집안으로 번창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공은 마음의 씩씩이 넓었으나 한편으로는 굳건한 성품으로 집안을 다스림에는 법도가 엄격하였다고 한다. 공의 생존 년월일에 대해서는 기록이 미비하여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선친과 자식들의 연대로 보아 세종조 때인 1400년대로 추측할 수 있다.

공의 묘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리 일명 매골산의 2만 6천 평 중 약 3,000평에 파조이신 감찰공(9세 圻)을 위시하여 손자인 보진재공(12세 之信)과 증손인 좌찬성(13



선조묘소 순방길에서 황해도 관찰사 지신 선조의 신도비 앞에서 일가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世 劼)공, 효자(15世 翁)공, 등 여덟 분의 묘소가 있다.

이 묘역은 조선조(세종~세조) 때부터 감찰공과 世葬之地로 특히 보진암공 묘소는 고양시 향토유적 16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는 묘소이다.

## 황해도 관찰사 지신 (12세 之信)

공의 자는 원립(元立), 호는 보진암(葆眞庵), 휘는 지신(之信 1512~1581)으로 조선조 세종 7년 4월 24일 판서공(承健)의 아들인 사의공(諶)의 지문(之文), 지행(之行), 지신(之信), 지충(之忠) 등 4남중 3남으로 한성 반송반(서울 盤松坊 현 서대문 천연동)에서 태어났다.

종종 21년에 사마시(司馬試 과거시험)에 합격하고, 이 해 대과인 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승정원 정자(承政院 正字)를 첫 관직으로 출발하여 다음과 같은 관직을 두루 거쳤다.

저작(著作), 주서(注書), 성균관 전적(典籍), 호조 예조의 정랑(佐郎), 경병조에서 정랑(正郎), 강원도 도사(都事), 사헌부 감찰(監察), 지평(持平), 집의(執義), 사간원(司諫



감찰(기)공 묘소에서 청장년회 자손들이 술잔을 올리고 참배하고 있다.

院)의 정언(正言), 헌납(獻納), 사간(司諫), 의정부의 검상(檢詳), 사인(舍人), 홍문관 수찬(修撰), 교리(教理), 응교(應教), 전한(典翰), 직제학(直提學), 사복시(司僕寺)의 부정(副正), 장악원 정(掌樂院正) 등의 벼슬로 당대의 으뜸으로 손꼽히는 인물이었다. 이외에도 별직으로 춘추관의 기사관(記事官), 승문원의 참교(參校),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라 승지(承旨), 부제학(副提學), 참의(參議), 황해도 관찰사, 장예원(掌隸院) 판결사(判決事), 중추원 첨지(僉知), 말년에는 강원도 양양부사(襄陽府使), 광주 부사(廣州府使) 등을 역임했다.

특히, 재직기간중 증중 실록편찬에 참여했으며, 관직을 물러난 후에도 여러 차례 천거되었으나 받아드리지 않았다. 선조 14년 70세를 일기로 별세하니 나라에서 재관(齎官)과 부의(賻儀)를 보내 조상하고 공의 공로를 치하하는 예우를 하였다.

공은 살아생전 부모 형제를 잘 섬기고 자제를 엄격하고 법도를 지키도록 하였으며 노복에게는 지혜롭게 다스렸다. 부인 참녕 조(曹)씨는 손이 없으며 차를 진주 유씨 사이에서 차봉 소(劬), 승의랑 할(劬) 등 2남 1녀를 두었다. 손자녀로는 유방(有 憑)과 유항(有恒), 유용(有容), 유경(有敬), 유광



# 안 내력 알기에 도움 줘

## 청장년회 주최로 30여 명 일가 참석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산 1번지에 있는 청백리공 묘소.



청백리공 묘소에서 청장년회 선조묘소를 방문한 일행에게 인녕 청백리공 문중 부회장이 환영나온 임원을 소개하고 있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모시고 있는 참봉공 묘소를 참배하고 있는 일가들.

(有光), 유성(有誠), 유겸(有謙) 등 6남 1녀가 있었으나 모두가 자식이 없고 참의인 일휴당 유겸만 다섯 아들을 두었다.

증손으로는 병자호란 때 효도 정문을 받은 핵(翬)과 흠(翊)이 있으며, 유학으로 이름 높은 타우공 상(翔 사헌부 지평), 일휴정숙(翊)과 농재공 익(翊)은 과거에 들어 대사헌, 관서 등의 관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손자인 만회당(有謙) 공은 일찍이 우암 송

시열 선생과 문원공 사계 김창생 선생에게 수학한 동문의 우의가 있어 선대의 碑銘을 부탁해서 보진암공 묘소 길목에 신도비를 세웠으며, 그 후 5대손 도암 선생은 후기의 글을 짓고, 세자 좌빈객 민진후공이 글을 쓰고, 진무사 김진규 공이 전각으로 머릿글을 써서 영조 51년(1775년)에 신도비를 세웠다.

공의 묘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향동

산) 간좌(良坐) 감찰공 묘소 위쪽 언덕에 모셔졌으며, 입구에 고양시 향토유적 제16호로 지정된 '황해도 관찰사 증 이조판서 이공 신도비'가 있다.(牛峯李氏 世譜 智卷 pp.39~45 신도비문 내용 참조)

### 효자공 흠(15세翊)

효자공(흠 1615~1647)은 관결사공 유겸(有謙)의 차남으로 청송 심씨와 사이에 어린 딸이 있었다. 공은 병자호란 때 아버지를 따라 피난 중 강화도에서 의병으로 참전하여 길상산에서 가족을 보호하다가 적의 화살을 맞아 돌아가신 분이다. 이때 형수인 상산김씨와 재취부인 동복 오씨 마저 자결하는 비운을 맞았다. 다행히 부친 만회당 공과 모친 파평 윤씨와 형(翊) 및 일휴정공(翊)은 구사일생 살아났다. 공의 이와 같은 충효(忠孝)는 우리 국사에까지 기록되었으며, 1715년(숙종 41년)에 세운 효자비는 의정부 좌찬성 겸 성균관 제주 세자이사 김집공이 글을 짓고 춘추관사 세자좌빈객 민진후 공이 글을 썼으며, 정헌대부 행 강화유수 겸 진무사 죽천 김진규 공이 전각을 썼다.(牛峯李氏 世譜 智卷 부록 pp.55~59 효자공 묘갈명 참조)

### 청백리공 순(9세 淳)

공은 조선조 건국이후 처음으로 강원도 관찰사를 거쳐 병조판서를 지내신 선조로 성종조(1470~1474)에 3품 이상인 당상관을 청백결백한 관리로 천거할 때 청백리 권록(券錄)에 올랐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 참판(종2품)으로 오로 20명의 중에 한 분으로 뽑힌 분이다.

성종 왕께서는 청백리로 포상할 당시 몸소 어사(御詞)로 격찬한 글을 남

겼다. 즉 藍田叢玉 雪嶺孤松 萬戶長安 一葉靑靑 “하남성 남전에서 나는 총옥 중에서도 나는 쌓인 영산 위의 도도히 서 있는 소나무 같으니 일만 호 장안에 푸르디 푸른 잎이어라”

성종조 청백리록에는 20명 중에는 순(淳) 선조를 비롯하여 상우당 허중(許琮), 유학자 농암 이현보(李賢輔), 노촌 이약동(李約東), 등 당대의 학문과 언행이 깊은 인사들이었다.

공의 묘소는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산 1 구백사(舊柏寺)기슭에 모시고 있는데 한 때 도시개발로 인해 묘역이 황폐화 된 것을 다시 치산하고 묘비도 새롭게 세웠다.

청백리공의 부인은 문정공인 남양(수원)인 흥언박(1309~1363 좌의정)공의 딸과 계비는 좌상을 지낸 능성인(화순) 구검(具儉)공의 딸이다.

공은 3남의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은 관관 근완(根完), 둘째는 부사 근전(根專)공으로 이 선조는 부사공 파의 파조(派祖)이며, 셋째 참판 근계(根繼)공은 참판공 파의 파조가 되었다.

### 참판공 근계(10세 根繼)

참판공(根繼)은 청백리공의 근완, 근전, 근계 등 3남 중 셋째 아드님으로 정무인 순천인 총재 김유량(金有良)의 따님 사이에서 경(經·兵使), 담(純·兵使), 룬(綸 府使)와 집(輯 掌令) 등 네 분의 아드님을 두셨다.

공은 호군원종공신(護軍原從功臣)으로 호조참판까지 올랐으며, 가선대부 품계를 받고 한 때 외직으로 부사(府使)를 지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특히 4남인 장령(輯)공은 성종(成宗)조에서 을미문과(乙未文科)에 들어 사헌부 장령을 지냈다.

공의 묘소는 선친의 유택 근처인 현재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산 구백사(舊柏寺)계곡에 순천 김씨 묘소와 함께 위 아래로 모시고 있다.

### 장령공 집(11세 輯)

공은 청백리공의 손자로 참판공의 4남 중 4남으로 성종(成宗)조에서 을미문과(乙未文科)에 들어 사헌부 장령을 지냈다. 그 후 연산군 4년(1498년) 유자광(柳子光)을 중심으로 한 훈구파(勳舊派)의 김종직(金宗直)을 중심으로 한 사림파(士林派)사이에서 일어난 무오사화(戊午史禍) 당시 훈구파의 무고로 김일손(金駟孫), 권오복(權五福) 등이 처형되고 김종직을 부관참시(剖棺斬屍) 및 사초(史草)와 문집(文集)까지 불태우는 극형을 받는 등 어수선한 소용돌이 속에서 갑자사화(연산군 10년), 중종반정(중종 1년) 등이 계속 일어나 공은 은덕을 사양하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그 후 집의(執義)의 증직을 받았으며, 병자(1636년) 6월 18일에 유명을 달리하여 울창한 숲이 있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134번지에 모셔져 있다.

### 참봉공 세균(12세 世鈞)

공은 장령공(輯)과 숙부인 전의 이씨 사이에서 세감(世鑑), 참봉 세균(世鈞), 참봉 세훈(世欽), 참봉 세명(世銘) 등 3남 2녀 중 2남으로 태어났다. 당시 갑자사화(연산군 10년)와 중종반정(중종 1년) 등의 어수선한 시대 배경속에서 간신 도배들의 봉당 및 비방이 끊이지 않아 조정의 기강이 땅에 떨어져 현량 지사들에게까지 화가 미치지 선친인 장령공(輯)께서 관직을 떠나게 되면서 그 화가 자손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라는 예견을 하고 벼슬도 마다하였다.

공은 선인 익산 이씨 사이에는 장사랑공 기(奇), 부(阜) 등 2남 1녀가 있었는데 이 소용돌이 속에서 장사랑공(奇)은 화를 피해 경상도 상주로 낙향하였다.

그 후 효순(孝舜), 효창(孝昌), 효명(孝明), 효건(孝健), 효삼(孝參) 등 5남 2녀의 자손들 중 4남 효건 공은 경북도 의성군 안계면으로, 효삼공은 경상북도 문경 마성면으로 낙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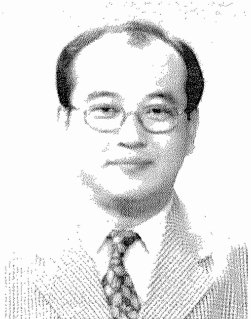
공의 묘소는 장령공 묘소가 있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134번지에 장령공 묘소 근방에 모셔져 있다.

# 나노기술·생명·정보기술 등 전망 밝아

## 반도체 소자 등에 상업화된 부분도 있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나노' 소자연구센터 李精一 박사

갑신년 새해에도 나노기술에서 좋은 연구 결과들이 창출되어 여러분의 일상 생활에 이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만화와 짧은 글의 웹주소를 첨부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감상하시기 바랍니다.(e-mail: jil@kist.re.kr)



정일 박사

나노(Nano)기술은 우리 앞에 화려히 나타난 듯 하지만 학문의 각 분야에서 그 용어를 쓰지 않았을 뿐, 진행방향에 놓여 있던 기술 분야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석학들이 2020년경에는 기존의 문리, 화학, 생물, 전자, 재료, 화학 등이 나노기술로 통합되리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나노기술을 알아보려면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차원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연속적인 축소에 의한 현상의 변화입니다.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소인국 사람은 키가 우리보다 1/10로 줄어 들었다 할 때, 표면면적은 1/100로, 체적이나 무게는 1/1000로 줄어듭니다. 사

람에게 필요한 열량의 중요부분인 기초대사량은 표면적을 통해 빠져나가는 열량이므로 표면적에 비례하여 1/100로 줄지만 밥 한공기의 무게 또는 열량은 1/1000로 줄어 소인국 사람은 한 끼의 밥 10공기를 섭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의 반대가, 알루미늄 막대기에 성냥을 그어대면 약간 뜨거워질 뿐이지만, 알루미늄 미세 분말에 그어대면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면적 대 부피의 비가 큰 미세 분말을 이용하여 화학반응을 극대화시키는 대면적재료라 합니다. 대면적재료는 반응성이 높은 촉매나, 재료의 강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주는 재료에 쓰입니다. 물질계의 차원이 바뀌면 운동의 자유도가 구속되면서 상태 밀도가 높아지고 불연속이 됩니다. 이러한 불연속적인 상태밀도는 가령 레이저 다이오드의 온도에 대한 민감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주어 궁극적으로는 온도변화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레이저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노기술이 약속하는 세상을 13세기 마르코 폴

로가 23년간의 중국(당시 원나라)체류를 마치고 돌아와 당대인들에게 전해 준 중국의 기이한 문물에 비교하는 이도 있습니다. 만리장성, 지폐, 석탄, 물시계, 활자, 등을 마르코 폴로의 당대인들은 믿을 수 없어서 그는 평생 흑세 무민하는 과대망상증 환자로 치부되었다고 합니다. 원자로 글씨쓰기,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일 크기의 작은 장벽, 나노 결정, 전자 하나 하나를 세는 회로, 각설탕 크기의 재료에 미 의회 도서관의 모든 책 내용을 기록, 저장하기 등은 현대인들도 잘 납득하기 어려운 허황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물론 70 나노미터(1 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 이하의 미세분말은 폐포를 통과하고, 50 이하의 분말은 세포벽을 통과하기 때문에 나노기술의 부정적인 영향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 영향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겠지만, 나노기술은 학문뿐만 아니라 이공계교육의 발전을 북돋아 주고, 전통산업의 첨단화를 이룩하며 이를 통한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노기술은 화장품이나 촉매, 반도체 소자 등에 이미 상업화된 부분도 있으나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 생명기술, 정보기술, 등 각 기술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 기술입니다.



정일 박사가 "나노"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



제45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대사간 문중 승육군의 부친인 병적씨가 인사를 하고 있다.



株式會社 光 一  
KWANG IL CO. LTD.

代表理事 會長 李 萬 寧

본 사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12-2  
Head Office : #112-2, Hankang Ro 2 Ga, YongSan-Ku, Seoul Korea  
TEL : (02)796-0321~4, 797-0321~3  
FAX : (02)796-0325

부산사무소 : 부산시 남구 문현4동 815 한일오피스텔 1411호  
TEL : (051)645-0321~2 FAX : (051)632-0323  
아산공장 :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226  
TEL : (041)542-2555~7 FAX : (041)542-2558  
Homepage : www.Kwangil.co.kr

# 甲申年 新年賀禮會 개최

## 우봉인의 단합과 대종회 발전을 다짐

### 신소재 과학학자 精一 박사 강연에 일가들 경청

해마다 청장년회(회장: 範卓)가 주최하는 신년하례회 행사가 2004년을 맞이하여 지난 1월 10일(토

받고 한중과학기술협력소장, 한국과학기술처 평가원 신소재 책임자로 있다

영(청장년회 운영위원), 근형(대종회 종무위원), 승녕(대종회 종무위원), 창무(대종회 종무위원)내외, 건녕(대종회 종무위원), 한구(대종회 부회장), 태녕(대종회 감사), 영범(대종회 부회장)내외, 방무(청장년회 부회장), 병수(대종회 종무담당역), 덕녕(대종회 홍보/섭외 담당역), 범학(청장년회 운영위원), 재무(청장년회 재무담당), 병구(감찰공문중), 병천(대종회 종무위원), 병덕(파주 대사간문중), 병남(청장년회 부회장), 병순(대종회 종무위원), 우녕(대종회 운영위원), 만녕(청장년회 부회장), 우봉이

100,000원  
창무(대종회 종무위원)

100,000원  
영범(대종회 부회장)  
200,000원  
병덕(파주 대사간문중)  
300,000원  
대종회  
500,000원  
아세아 그룹 업무수첩 및 2004년도 카렌다 (참석자에게 기증)



2004년도 신년하례에 참석한 집안 며느리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희망에 찬 새해의 건강과 행운 있기를 빌며 일가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요일) 오전 11시 30분 한국 프레스 센터 19층 매화 홀에서 개막되었다.

이날 태녕 일가의 사회로 개막된 신년 하례회는 50여 명의 종친들이 모여 범탁 청장년회장의 인사와 창무 전 청장년회장 이임사 그리고 만녕 대종회장 인사에 이어 병태 대종회 사무총장의 한국 과학 기술원의 '나노' 소재 책임자로 있는 一寧(호적명 精一 50세)박사를 소개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일 박사는 '나노' 소재에 대한 의의와 전망에 대하여 강연(p2,상단계재 참조)이 있었다. 그런데 정일 박사는 핵 공학 분야의 권위자였던 병호(2001년 11월 7월 9일 작고) 박사의 장남으로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부라운 대학교 물리학 박사학위를

'나노' 소재 연구센터 책임연구원으로 있다. (강연 내용 참조)

이날 참석한 일가 및 기금조로 찬조한 일가는 다음과 같다.

승무(대전), 현무(영모당 회장), 만녕(대종회장), 인녕(대정회 종무위원), 병덕(대종회 부회장), 병태(대종회 사무총장), 태녕(대종회 홍보/섭외담당역), 철형(대종회 재무담당역), 병직(대사간문중), 병철(대종회 고문), 병국(대종회 종무위원), 창무(대종회 부회장), 덕녕(사직공 문중회장), 길웅(대종회 종무위원), 용무(대종회 종무담당역)내외, 학구(대종회 부회장), 근녕(대종회 종무위원), 정일(부사공문중 초청강사), 무탁(대종회 종무위원), 해녕(청장년회 운영위원), 도

영(청장년회 운영위원), 근형(대종회 종무위원), 승녕(대종회 종무위원), 창무(대종회 종무위원)내외, 건녕(대종회 종무위원), 한구(대종회 부회장), 태녕(대종회 감사), 영범(대종회 부회장)내외, 방무(청장년회 부회장), 병수(대종회 종무담당역), 덕녕(대종회 홍보/섭외 담당역), 범학(청장년회 운영위원), 재무(청장년회 재무담당), 병구(감찰공문중), 병천(대종회 종무위원), 병덕(파주 대사간문중), 병남(청장년회 부회장), 병순(대종회 종무위원), 우녕(대종회 운영위원), 만녕(청장년회 부회장), 우봉이

씨 일가 며느리 6명의 찬조금남부 일가 만녕(대종회 회장) 200,000원

범탁(청장년회장) 200,000원

해녕(청장년회 운영위원) 100,000원

병무(대종회 부회장) 500,000원

창무(전 청장년회장) 200,000원

명준(대종회 감사)

### 은무일가 작품출품 전시 상덕법회 전시회 개최



문천 은무일가

지난 6월 17일 (~23), 서울에 병천(丙天) 대종회 종무위원이 대표로 있는 상덕서법회(尙德書法會)의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 종로구 관훈동에 있는 백악미술관 [02]734-4205에서 상덕서법회전(12회)을 개최하였다.

전시회에는 회원의 작품이 전시되었는데 이중 은무 [明茂·해성일업(주)·안국상사 대표이사]일가의 작품(도입선생 시·70cm×200cm)도 출품되어 눈길을 끌었다.

### 게·시·판

**동정** 2003년 ▲萬寧(회장) 청백리공 문중 시제 및 총회(10.27) 참석 ▲範周(청백리공 문중 감사)新光전기합자(주)대표사원 ▲명문가 탁본 전시회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용인시 문화원(원장:홍계구) 주최로 松潭大學에서 龍仁所在 名文家 碑文, 行狀, 神道碑 拓本 展示會를 개최, 우봉이씨 문중에서는 晚昌(도암공 선친), 打愚公(翔), 歸樂堂公(晚成), 陶菴公(辭) 등 선조의 拓本이 전시 ▲4/4분기 회장단 및 종무위원회개최(12.8) ▲範卓(청장년회 부회장)12월 5일 청장년 회장에 취임 ▲丙積(대사간 문중)2남 5녀 중 2남인 承昱(승욱)27세 연세대 법과 졸업)군이 제45회 사법고시에 합격2004년 ▲萬寧(회장)1.2 (주)광일사에서 회장으로 승진 취임 ▲丙文(대종회 고문) 丙爽(감찰공문중 부회장)1.30 12:00 힐튼호텔 오찬 석상에서 병태 사무총장으로부터 감찰공 묘소 기금모금 및 치산 문제 상의 ▲장학기금 모금 추진위원회 결성 ▲眞嘍(대사간공문중 부 丙學)2.25부로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부임 ▲萬寧(회장)3.9 일본 오사카 산업시찰차 출국(~3.12) ▲秉茂(부회장 아세아 그룹회장)3.18 국민훈장 석류장 포상 교육공헌 ▲萬寧(회장), 漢九(부회장), 丙德(부회장), 丙泰(사무총장) 4월 8일, 총법 국회의원 임후보 일가 격려 방문 ▲1/4분기 종무위원회 개최 장학기금 파증증 배당건 외 ▲청장년회 선조묘소 순례(5.9)순례모소 감찰공(折), 보진암공(之信), 효자공(翀), 효자공(翀), 상삼김씨 묘소 청백리공(淳), 참판공(根繼), 장령공(暉), 참봉공(高) 참배 참석인원:30명 ▲萬寧(대종회 회장) 해외 성지 순례차 출국(5.10~29) ▲묘소치산 ▲萬寧(대종회 회장)3월 28일(~29일)아산시 영인면 소재 증 호조참판(誼) 및 총이공(綱俊) 묘소 治山(경비 전액부담) ▲明俊(대종회 감사)4월 2일, 문경 가은면에서 정3품 통정대부(高用)공 묘비 건립 건립 ▲丙七(대종회 고문)4월 10일 11:30분,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 감찰공 묘소

治山 慰安祭 거행 ▲丙天(종무위원·상덕서법회 대표) 6월 17일(~23) 백악미술관에서 상덕서법회 창립30주년 상덕서법회전 개최 (11월 3일) 며느리와 명심보감 출판기념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3/4분기 종무위원회의 개최 6월 26일 ▲丙泰(사무총장) 한국전쟁문학회 부회장 취임 ▲泰寧(종무위원·서울대 명예교수) 斗溪學術研究財團 설립준비 ▲청백리공 문경중종(회장 재녕) 문경 일가 70여 명(9.5), 개봉동 청백리공 묘소 및 찬관공 묘소와 육친 영모당 참배 ▲建茂(참판공문중) 富嘍 아드님, 종령에서 대령으로 승진, 해군본부 근무 ▲舜寧(만성공 문중회장) 10월 19일 건무, 무성, 범동 등 일가와 함께 충주시 영점면에 있는 화천공(재)를 비롯한 문간공(광문) 및 이조판서(휘정)공 묘소 성묘

**결혼** 2003년 ▲芳茂(청장년회 부회장) 따남 定致양 12월27일) 고대교우회관에서 결혼식 거행 ▲丙天(감찰공도암공 문중) 아드님 秀寧(신부:주현양) 11월 29일 코스모스 타워 ▲茂錫(청장년회 부회장) 신랑 純範(7월 3일 12:00 센츄럴시티호텔에서 거행 ▲泰寧(대종회 감사) 3남 學茂(신부:洪秀珍양) 10월 2일 오후 2시 은우리교회 햇빛센터 사랑성전에서 결혼식 거행 ▲丙秀(대종회 종무담당역) 장남 鄒寧(신부:金成姬양) 10월 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용산구 마이웨딩 홀 1층 크리스탈 홀에서 결혼식 거행

**부고** 2003년 ▲昇茂(전 국회의원)10월 24일 별세, 서울 아산병원 영안실 3층35호실 발인10월 27일 오전8시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천주교묘원, 부인 신수연 여사사이에 주영, 원선, 수진, 범용 등1남3녀가 있다. ▲功茂(타우공문중) 11월 14일 별세

**시제** 2003년 ▲文峯書院 秋享祭(원장:李殷滿) 杏村 閔純, 秋江 南孝溫, 忠肅 金正國, 服肅 高遊, 秋巒 鄭之雲, 慕堂 洪履祥, 石灘 李慎儀, 晚晦 有謙. 11월11일 6:00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1003-3 추신빌딩 402호 ☎ 031)963-1009

# 四經을 깊이 통달한 학자 三友堂 선생

## 『性理全書』와 『春秋左傳』을 그대로 실천한 선조

충남 천안시 신안 2동 (구 연기군 북면 흥덕리)에 있는 삼우당 선생의 묘소는 손마져 끊겨 찾는데 없이 450년 동안 쓸쓸히 잠초만 우거져 있다.

삼우당 선생은 황해도 관찰사 두봉(吉培)공의 현손으로 감찰(拏)공은 증조이며, 예조관서(承健)공은 조고, 선고는 순(詢)공으로 전의 이씨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

선생의 자는 원로(元老), 휘는 지충(之忠), 어려서부터 지기가 범상하여 행실과 재능이 남달랐으며, 선생의 호가 말해 주듯이 매화와 대나무와 국화를 사랑하였다.

선생의 묘갈을 쓴 호음(湖陰) 정사룡(鄭士龍·대제학)을 비롯한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領議政), 지천(芝川) 황정욱(黃廷彧) 약포(藥浦) 이해수(李海壽·예조참우) 등과 명곡(明谷) 최현정(崔鉉鼎·숙종조 영의정·최명길의 아들)이 쓴 비문에서 선생의 인품을 찾을 수 있다.

선생은 살아 생전 학문에만 치중하였으니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대제학) 문하생으로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할 때 벼슬(봉부참봉)길에 올랐으나 모재의 영향을 받아 이를 마다하고 끝내 부임하지 않고 후학양성에만 치중하였다. 선생의 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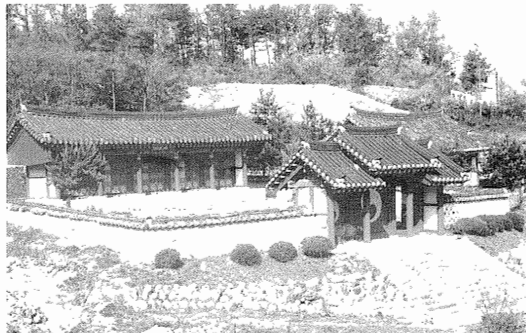
생 중에는 지천, 약포가 있다.

선생은 주역(周易), 시경(詩經), 서경(書經) 등을 심층적으로 터득하여 체계화시켰다. 특히 북송(北宋)의 성리학자들과 주희(朱熹)의 정주학(程朱學)인 성리전서(性理全書)와 춘추좌전(春秋左傳)을 통달한 대학자였다.

또한 정치에 참여는 마다하면서도 나라 일에 잘못이 있으면 과감히 상소하는 의로움을 보여주어 주위에서는 선생의 마른 소리에 신상을 열려하였다. 말년에 증병에 걸려 문인인 지천(芝川)이 간병할 때 선생은 '나는 다

답게 말하곤 하였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실천과 조예의 깊음은 선생의 지난 학행으로도 충분하였다고 명곡(明谷)은 비문에서 말하고 있다. 향년 55세를 일기로 세상을 달리한 선생은 순천 김씨 적순(金迪順) 딸 사이에 공룡참봉 첨(愼)과 생원 겸(愼) 등 두 아들이 있었다. 이 중 차남 겸은 재주가 뛰어나 감찰공 증손으로 들어갔으나 대를 잇지 못하여 사후에 입양한 현손 귀락당(翔·병조관서)공의 공적으로 효자(孝)공과 함께 효조참의(戶曹參議)에 증직되었다.



삼우당 선생을 배향하고 있는 송천서원 전경

시 소생키 어려운 병에 걸려서 모든 일이 생각나지 않지만 그중 옛날 읽은 글 가운데 깊은 뜻이 있는 것들은 더욱 새로운 맛이 있게 생각나나 그것을 끝까지 매듭짓지 못한 것이 한이다.' 라고 학자

저서로는 조두록(俎豆錄)이 있으며, 현재 충청북도 문화재, 향토유적 36호로 보존되고 있는 송천서원(松泉書院)에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영의정) 등 15명의 유선현과 함께 배향되고 있다.



### 시

## 밥상을 받아놓고

虛 雲

호박 잎 손바닥에 펼쳐놓고  
밥 한 술 퍼놓고  
된장 한 숟가락 떠 얹어서  
그대 한 번 먹었으면 좋겠다.

이 극한 그릇 퍼다가  
밥 한 술 말아서  
당신 한 입 나 한 입  
그대 한 번 먹었으면 좋겠다.

신 김치 없어서  
입이 찌지라 한 입 물고  
바라보고 킁킁거리며  
그런 밥상 마주했으면 좋겠다.

빈 밥상 물러놓고  
잘 익은 飯酒한잔  
유리잔에 부어서  
러브샷 해왔으면 좋겠다.

그대 사랑 올려놓은  
그런 밥상 받아보면 좋겠다.

解註: 허운(虛雲) 李昌寧, 경북 문경시 가은읍 출생(1947. 2. 17. 음), 건국대학교, 대구교육대학 졸업, 저서: 빨간모자, 가정보감, 실 맛나는 이야기 등 다수, 현 공서초등학교 교장  
홈페이지: www.heoun.zoa.to

새로운 아세아시멘트 심물의 의미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Conceptual Message를 표현하기 위해 남버린, 최고를 의미하는 이니셜 'A'를 중심으로 지구촌을 감싸안은 역동적인 터전을 형성화하였다. 역동적인 터전모티프는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무한대의 성장의지를 나타내며, 밝은 Green Color로 한 경천화적인 기업과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의 의지를 표현하였다.

## 아름다운 共存, Wise Recycling

깨끗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여 더 큰 에너지를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떠올립니다.  
다음 세대가 사용할 풍요로운 자연과 맑은 공기만을 생각합니다.  
연간 70만톤의 산업부산물을 지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아세아시멘트의 한결같은 마음-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려는 아세아시멘트의 실천의지는 계속됩니다.



아세아시멘트